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wandoexpo.com
2017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2017.4.14(금)~5.7(일) 24일간 완도항과 해변공원 일원
2017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4.1(토)~4.30(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447호 1판 (음력 2월 9일) 2017년 3월 6일 월요일

중국 사드 보복 '불똥' 고민 깊은 광주·전남

투자 유치·관광·문화교류 등 중국 특수 기대 '물거품' 우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비공식적인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관광·문화교류 등 중국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4·15면〉

광주시의 경우 그동안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국 조이롱(九龍) 자동차 투자유치와 중국 칭와대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칭와포럼', 중국 장사시와의 정율성 음악축제 등 자치단체 간 문화 교류 등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지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당장 지자체 간 예정된 교류 협의가 잇따라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 것은 물론, 투자를 기대했던 업체들의 방문도 무기한 미뤄지는 등 직접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하던 중국 관광객 '유커'의 방문마저 중단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관광지도 더욱 한산한 모습이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현재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주요 전략으로 세우고 칭화대와 공동으로 하는 칭화포럼 개최, 중국 내 한인 인사의 중국명예협력관 위촉, 한중간 언론매체 협력 확대, 중국문화원 광주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중국 조이롱 자동차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면서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 진출은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체 간 교류는 특별하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이낙연 지사의 쓰촨성 방문이 무산된 뒤 이 지사가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접촉 일정을 모두 올 하반기로 연기했다. 전남도는 저장성, 장시성과는 자매결연, 상하이시, 산시성, 푸젠성 등 8개 성과는 우호 교류협정을 맺었으나, 최근 상황때문에 이들과의 교류협력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다만 민간교류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가 민간업체에게 위탁해 중국 베이징과 톈진에서 3월 말께 가질 예정인 의료관광설명회는 조만간 개최 여부를 판단하고, 4월 이 지사가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 현지 무역박람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에 대한 중국 측의 투자는 사드 발표 이전에 거의 취소된 상태로 당분간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접촉했던 2곳의 중국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밖에 전남도 외자유치팀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으나 답방 통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 유치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남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15만8000여 명에 이르렀으나 올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중국보다는 홍콩·동남아와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개발, 현지 마케팅, 온라인 홍보 등을 강화해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고재영 전남도 관광과장은 "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광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체로키 파일' 팀 셔록 광주 온다 ▶6면

골프여제의 귀환
HSBC 챔피언스
박인비 우승
▶21면

3·1절 기념 마라톤…남도의 봄을 깨우다

3.1정신 기리며 봄을 달리다 제52회 광주일보 3.1절기념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5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3000여 마라토너들은 이날 일제 맞서 만세운동으로 항거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3·1정신을 기리고, 자유와 민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광주의 도심을 질주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관련기사 7·18·19·20면

전국 3000여 명 3·1정신 계승
문화전당~영산강 힘찬 레이스
풀코스 최병진·이정숙 남녀우승

전국에서 몰려온 3000여명의 건각들이 봄 햇살을 즐기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심장부를 누볐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 52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5일 오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을 출발, 영산강변을 품고 상무시민공원까지 달리는 코스에서 펼쳐졌다.

마라톤 동호인을 비롯해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3000여 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인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로 이어지는 도심한 복판을 달리며 민주화의 숨결을 느꼈다.

참가자들은 또 영산강변을 따라 화사한 봄 정취를 호흡하며 지역 대표적인 달리기 축제를 즐겼다. 겨울 동안 굳었던 몸을 풀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는 참가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인 3·1 마라톤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권은희·최경환 국민의 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대회는 오전 8시30분 하프 코스가 시작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점으로 금남로를 거쳐 영산강변을 따라 서창교와 승촌보, 상무시민공원으로 골인하는 풀코스는 8시 35분부터 펼쳐졌다.

풀코스 우승의 영광은 최병진(40)씨가 차지했고 여자부문 우승컵은 이정숙(52·천안)씨가 들어올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박근혜·최순실 공동운영"

특검,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이를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요청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또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가 박 대통령이 아니고 최씨였다고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측은 이러한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다는 점을 6일 수사결과 발표때 구체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특검에 앞서 미르·K재단 관련 의혹을 파헤친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두 재단의 설립·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90일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기금 규모 결정,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두 재단의 '주인' 역할을 한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특검 수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비영리 재단인 양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이며 "공모한 관한 직접·간접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